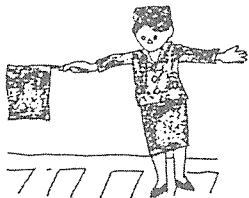


## 안전 길 들이기



### 민 철 기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습관이란 제이의 천성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좋은 말버릇은 그 사람의 품성을 높여 주고 나쁜 말버릇은 어디가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외에도 여러 버릇이 여러 곳에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좋은 버릇을 세살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할까? 또한 이와 반대로 어려서부터 나쁜 버릇이 몸속에 배어있다면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버릇을 갖기를 원하며 이 좋은 버릇으로 인해서 인생의 풍요한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좋은 버릇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하나 하

나 얻어질 수 있고, 우리 몸 속에서 꽃피우고 난 후에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전 길 들이기라고 해서 뽀족한 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도 다른 좋은 열매와 같이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열심히 보살피고 하는데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서 몸에 배인 좋은 안전의식의 습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 좋은 습관을 얻어 내려면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부터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어린 아이들의 표본은 바로 그들의 부모의 행동거지 그 자체이므로 좋은 안전습관을 가진 부모만이 좋은 안전습관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진솔한 이론이 대두되게 된다.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말미

암아 우리 사회는 바야흐르 각종 재해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오는 각종 인사 사고,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사회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공해의 범람,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하루도 쉴 틈 없이 여기저기가 온갖 재해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터미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각 개인의 안전문제이다. 내 몸은 내 스스로가, 각종 재해로부터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야말로 가장 소중한 밑바탕이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여타의 재해를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안전 길들이기의 방법은 지극히 평범한데서 찾아야만 될 것이다. 이것이라고 따로 왕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고 어떤 것이 안전한 방법인지를 가르치고 스스로 판단케 하는 힘을 키우게 함으로써 안전 길들이기에 한층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칼이나 가위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칼날이나 가위날을 내가 잡고 내밀므로서 상대방이 자루 쪽을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식의 교육이 이미 행해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몇번씩 지적을 받아본 일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아주 어려서 엄친으로부터 몇번

꾸지람을 받아 본 기억이 생생하며 그 이후로는 칼을 건넬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건네주고 있다.

안전수칙은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행동이 바로 안전수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나 자신은 물론 남까지도 사고에서 지켜주는 좋은 본이 되는 것이다.

세살부터 터득해야 할 좋은 습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것이 아마 이 안전과 관계되는 대목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전은 직접적으로 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안전고리는 묘하게 생겨서 그런지 나 혼자만의 사고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며 남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루되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혼자만의 사고로 끝날 때에도 간접적으로는 늘 다른사람에게 유형, 무형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고의 마성(魔性)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안전 길들이기는, 말과 같이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며 인기있는 과목도 아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필수과목인 것이다. ㉞

〈필자=안전전문가〉